

2024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국문)

開 會 辭

2024. 8. 27. (화) 09:00~09:03 (3분)

이화여대 삼성홀

금 용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2024년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님,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님,

Colin Crooks^{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
Georg Schmidt^{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님,
Peter van der Vliet^{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님,
Maria Castillo Fernandez^{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님,
Philippe van Hoof^{필립 반 후프} (유럽상공회의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혜안을 나눠주실 연사님들과,

오늘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님과 이화여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로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23년 4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의 연도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은 420조원,
민간금융회사는 283조원을
저탄소 전환 자금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들 역시
다양한 정책과 새로운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저탄소 전환 자금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일본, 홍콩, 유럽 등의 소중한 지식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 걸음 더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권이 저탄소 전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II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는 지난 6년간,
다양한 미래금융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 왔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할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은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강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후손들의 삶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